한국 화학산업 미래는 있는가? …X/X

플래스틱 재활용에 거는 기대

플래스틱 재활용을 말하면 석유화학기업이나플래스틱 가공기업 모두 골치 아픈 문제로 치부해버렸던 것이 사실이다. 사업영역의 근본에관한 문제임은 물론 내놓고 외면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자칫잘못하면몰상식한,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모르는파렴치한으로비난받을소지가다분한까닭이다.

그러나플래스틱 재활용이외면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라는것은모두가인식하고있다. 국민소득수준향상과함께소비가확대되면서플래스틱소비가늘어나는것은어찌할수없으나갖가지생활폐기물처리에골치를썩는지경에 이르렀고, 농촌은폐Vinyl 때문에농사를지을수없다는하소연이나오고있는실정이다.

더군다나환경부가2003년 1월1일부터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로 변경하면서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피할수도 없게됐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은재활용 가능 폐기물의일정량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로, 가전제품 · 타이어 · 윤활유 ·PET병등이1차대상이고플래스틱요구르트용기도곧적용된다.

석유화학협회, 프라스틱조합및 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총 120억원을지원해 플래스틱 재활용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키로한 것은늦은감이없지않지만용단을내린것으로환영받아마땅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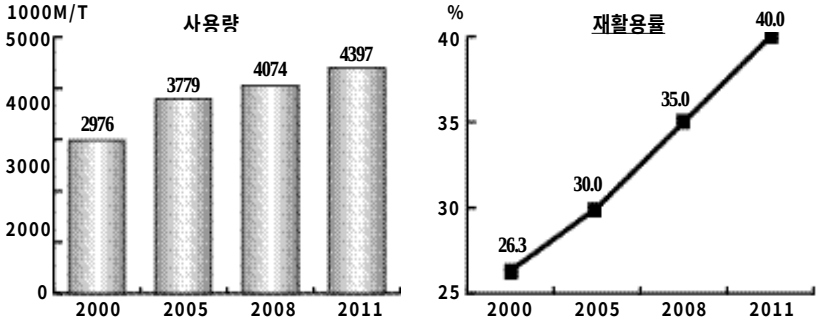
석유화학협회가 100억원을, 플래스틱업계가 20억원을 2002-03년 지원해 플래스틱제품별 생산 · 유통 · 재활용 실태, 기술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체계적 · 종합적으로 실시하며, 혼합 폐플래스틱을연간 약 6만톤씩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수도권, 중부권, 영 · 호남권 등 3-4개권역에 설치할예정이라고한다. 또 플래스틱 재활용사업 전담기구를 합동으로설치하고, 종합재활용대책기구로발전시켜나갈방침이다.

석유화학-플래스틱업계의합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계 형성 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플래스틱의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이나 플래스틱 가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다는의지를 보인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결국에는 플래스틱에대한이미지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보이고있다.

석유화학이나 플래스틱업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재활용의 경제적 편익이 재활용 사업에 투자된 돈보다 4.05배 높게 나타났다는점에도관심을가졌으면한다. 고려대학교경제학과곽승준교수의분석에따르면, 1998년한국자원재생공사의재활용사업관련융자금과매출액이각각 453억5900만원과 211억8800만원인반면, 파급된경제적효과는환경개선효과 800억57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698억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사업에 1원을 투자했을 때 4.05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셈이 되는 것이다. 농촌폐비닐재활용의환경개선효과도폐비닐톤당 44만5658원으로계산됐다.

플래스틱은 가볍고, 강하면서도 가공성 등특성이 우수하고 다른 소재보다 사용하기 편리해 일상생활용품은 물론전기, 전자, 자동차, 건설 등 산업전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썩지 않고 부피가 크며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처리됨으로써 자원의 낭비및 환경문제를 초래해왔으나 석유화학-

플래스틱재활용 목표



플래스틱공조를통해오염을불식시키고이미지를개선하는계기를마련했다.

석유화학과플래스틱 양쪽은적극적인협력을바탕으로플래스틱의유용성을널리알리고, 국민들의부정적인의식을개선시킬수있도록노력하기바란다.